



## ‘그린밸런스’ 전략에 올인하는 SK인천석유화학

친환경 경영과 지역 상생에 앞장서 온 SK인천석유화학(대표이사 최남규)이 ‘그린밸런스’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. ‘그린밸런스’는 기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고 친환경 사업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환경적 가치를 플러스로 만들겠다는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전사적 추진 전략이다.

### 국내 최고 수준의 클린 공장 구축

‘그린밸런스’ 달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국내 최고 수준의 클린 공장 구축이다. 이를 위해 2006년부터 SHE(안전·보건·환경) 분야에 3천300억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올해도 500억원 이상 투자했다.

또 지난 9월 말부터 총 40일간 전 공장의 가동을 정지하고 콘덴세이트(초경질원유) 정제 시설을 비롯한 전체 공정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했다. 정기보수는 설비 안정성 확보와 운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정유·석유화학 공장에서 3~4년을 주기로 이뤄진다. 이때 가동을 멈춘 뒤 설비를 분해해 정밀검사, 정비, 노후설비, 촉매 교체 등을 한다.

이 기간에 추가로 설치한 배연탈질설비(SCR)를 통해 대표적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(NOx) 배출량을 연간 83t 이상 감축할 예정이다. 또 열 교환망 최적화와 원유 정제 설비 교체를 통해 연평균 전체 연료 사용량의 2%를 절감하고 온실가스(CO2) 배출량을 연간 약 3만6천t 감축할 계획이다.



### 친환경 사업 모델 창출로 환경 가치 플러스 ‘가속화’

SK인천석유화학은 올해 11월부터 공유인프라를 통해 환경 분야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‘에너지 업사이클링’ 사업을 시작했다. 이 사업은 SK인천석유화학의 생산공정 열원과 집단지에너지사의 열배관망 네트워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해, 인천 지역 대규모 주거 단지에 냉난방용 에너지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.

총 공급 규모는 일반 가정 4만세대가 1년간 사용 가능한 연간 약 28만 Gcal(37mW급 복합화력발전소 생산량)다.

올해 9월에는 포스텍과 함께 미생물 분석을 기반으로 한 ‘지능형 하·폐수 처리 솔루션’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. 이 솔루션은 미생물 DNA 기반 진단기술 등 최신 기술과 공정 운영 노하우를 접목한 신기술이다.

### 환경 분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민관 공동 친환경 캠페인

SK인천석유화학은 환경 분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민관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.

지난 4월 인천관광공사, 유엔환경계획과 함께 인천 지역 사회 내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‘위그린인천’(We Green Incheon) 캠페인을 시작했다.



캠페인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친환경 실천 생활화와 도보로 돌레길 걷기 등을 통해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. 또 참여 인원수만큼 인천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묘목을 심어 친환경 숲으로 가꿀 예정이다.

최남규 사장은 “SK인천석유화학은 지역사회 상생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만큼 환경 분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‘그린밸런스’를 달성하고, 지역사회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겠다”고 말했다. ♡

